

척사뉘희승부가



[해제]

본 가사는 출가한 한 여인이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가절(佳節)을 맞이하여 친정에 와서 여러 친구들과 윗놀이 대회를 갖고, 그로 인해 이는 갖가지 감회를 총 140여 행의 구성으로 노래한 비교적 장편의 여류가사(女流歌辭)이다. 작자와 제작 연대는 미상이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으로 보아 낙동강 연안의 김씨(金氏) 집안의 한 여인이 제작한 노래이고, 작품의 맨 끝에 “계유 정월 일 성중이라”한 글이 덧붙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어느 계유년(癸酉年) 정월의 제작이되 확실한 연대는 밝혀 있지 않다. 이는 묵필(墨筆)의 필사본에 전한다. 띄어쓰기도 없는 줄글의 전개이지만, 내용상 파악에 의해 그 음수율(音數律) 또는 음보율(音步律)을 보면 4음 4보격을 위주로 하고, 1행 4음보를 기본으로 한 점, 우리의 가사체(歌辭體) 형식의 노래임은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1행 6음보의 서술이 30행에 이르고, 1행 3음보, 또는 5음보의 시행이 간혹 나타나며, 음수율로는 2.4조, 또는 3.3조의 서술이 혼합되고 있어 전형적 가사체 구성의 시가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작품의 서술 순에 의한 그 내용은 다음의 몇 단계로 이어진다. 내용상 식별을 위해 원문을 6단락으로 구분하고, 각 단락의 허두 및 말미 구절을 들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연안에 ~ 윗노름이 제일식 : 새해 신정(新正)에 친정(親庭)에 온 한 여인이 먼저 친정 사랑을 하고, 부녀자들의 오락으로 척사대회(擲柶大會)의 개최를 제안. 2) 척사회를 붓친다고 ~ 이기양양 증관일식 : 척사대회의 통지문 발송, 그에 따라 각종 차림으로 찾아오는 여러 새댁들의 모임과 남자들의 관심에 의기양양(意氣揚揚)하는 모습. 3) 쌀니좌석 살펴보니 ~ 가진품물 야단일식 : 윗판을 어울리게 한 여러 여인들의 소개, 이들이 현장에서 드러낸 갖가지 흥미로운 모습, 특히 윗판에 참여한 아낙네들을 일일이 거론하되 송실.김실.이실---등 남편의 성을 좇아 부르기도 하고, 노동딕.금당딕.영천딕---등 택호(宅號)로서 호명하기도 하여, 이곳의 서술 단락은 근 80행에 이르러 이 가사의 핵심 부분으로 분류된다. 특히, 그 사설에서 “~室”로 호칭된 여자들의 수는 13명이오, “~宅”으로 호칭된 수는 25명에 이르러, 당시 윗놀이 모임이 얼마나 큰 성황을 이루는 부녀자들의 참여였든가 가히 짐작케 한다. 4) 식딕니들 윗노논술 ~ 풍정조키 노든우리 : 윗판에서 모나 윗 등으로 말을 잘 쓴 나머지 이긴 현장의 모습과 그 승리감, 아울러 윗놀이 후 갖는 잔치의 성황에 더욱 정겨워 하는 내용이다. 5) 엇지타가 여즈로서 ~ 강슨이별 원슈로다. : 즐거운 명절을 보냈지만 곧 시집에 돌아가야 하는 아쉬운 처지에서, 여필종부의 신세 한탄, 고향 산천에 대한 그리움, 친정 부모형제와의 별한(別恨), 내년의 상봉을 기약하고 각처로 흩어지는 동류들과의 풍정타령(風情打令)으로 된 단락이다. 6) 남즈들 우리보고 ~ 일중화슈 모여놀식 : 이 가사를 마무리 짓는 종결 단락이다. 먼저 신수 좋은 남자의 처지를 칭송하면서 아울러 여자들도 시부모 잘 모시고 참된 남편 공경하자는 다짐을 전제하고, 동류들에게 이후 가절에도 정겨운 친정에서의 즐거움을 금년처럼 누리자는 유부녀의 소원으로 글을 끝맺는다.

[원문]

척사뵤희 승부가

낙동강 연안에 우리구담 명승기지

조흔고디 번성하신 김씨문화 가가호호

즈여들도 증하도다

송구영신 조흔가절 풍정만흔 짜임늬가

허송춘광 후울손가

이러한 장헌기회 무슨노름 허존말고
골리시릭 그노름은 건달난봉 노름이요
화토가로 그노름은 화류총기 노름이라
여러가지 다던지고 규중의 여조임니
웃노름이 제일식
척사회을 붓친다고 일시의 공논홀제
중소는 누딕인고 광딕헌 종탁이라
초육일 성회라고 시비불너 통문하니
불송헌 식딕니가 종종거름 밥비쳐서
일제이 다모엿다
동서편을 갈여안조 식딕니을 구경하니
인물도 히헌하다 천하일식 다모엿니
얼스던 덜썸기나 씬스던 덜얼기나
얼고썸은 가즌단중 녹의홍송 초려입고
유두분면 향니속에 춘풍화기 출난하다
거룩하신 농조드리 저인물의 눈이팔여
사랑을 만이쥬니 이기양양 중관일식
쌀니좌석 슬퍼보니 여중호걸 다모엿니
웃판을 붓쳐놀제 아기달니 쳐조들리
황소갓튼 쇠딕니을 판판이 지울적의
풍정조흔 만운송실 응두리춤 추든숫히
얼근터이 귀골되야 옥관조도 중홀시고
거리조흔 소손김실 유월잉부 두중하야
좌석에 안진모양 광딕헌 팔칸마루
반이나 초지헌니
놀기질긴 풍손이실 퍽날전 어린익을
젓도헌번 안쥬고셔 종일종야 웃판을 슯철니니
항열넘흔 호기홍실 조정도 남다르다
어린아히 핑기하고 웃놀기도 안질기니
얌전한 춘양권실 일모종야 호성으로
손벽치기 일이로다
화려한 동손류실 은근시런 풍정일식
손드라신 기돛권실 모듬설세 쥬중일식
아리다운 글춘황실 속으로는 조화그나
외면의 천연하다
영이헌 슈동권실 호기도 중하도다
검제딕 슈동권실 승부도 딕단하다
잉도갓튼 그입술이 나문거시 당횱트라

번최시런 초니정실 웃도제일 즐놀건만
미스가 조달하야 심육세에 나흔아달
모조기가 썩갓쉬나
버들밭 강실이논 우리일가 쌀니로서
기명이 제일이라 웃놀기는 뜻이업고
히스시 양머리에 세종먹기 쥬중일식
어리무던 봉화정실 신경이 미흡하여
실낭을 즉별하고 흥심이 업는모양
외면의 낫탄하니 그도또흔 여식로다
미동탁 쳐즈싸님 책스디회 통문듯고
놀고스 십지만은 동싱을 디헝하고
흥인날이 임박하니 동방스총 비겨안조
굴지망부 여식로다
노퇴기 김서방은 전처가의 오섯다가
쌀니들 웃논단말 풍편의 엇지듯고
구경을 오섯다가 좌석을 슬퍼보니
고인니 적막하야 헛썸심스 총양업니
쇠탁니는 누구누구 모엿던고
유순하신 종부님은 외면은 엄전하나
니용은 음흉시러 싸임니을 이길나고
운중일 헛이썸일 불송하기 그지업니
도리쌍쌍 노동탁은 그중의 나만타고
편중죽체 혼조하니
웃말도감 금당탁은 씨울품은 디단컨만
웃진거시 공역인가
아리좁직 영천탁은 웃치스 즐노라도
승공무덕 되야쉬나
허황시런 봉선탁은 질요량을 미리하고
신들리고 압셔왔니
어리광디 톱동탁은 어르면서 눈을썸나
남편이 일본가셔 편을뭇 드러쥬니
남우경을 불버하니
막다바신 남기탁은 웃젓다고 울고갈걸 왜왓쓰고
흥물시런 포니탁은 며늘니는 민주지만
싸임중의 덕인이라 금연니로 칭남하소
악음바른 두곡탁은 웃말도적 혼조로다
썸두막흔 우동탁은 손기골의 칭중하야
웃말을 모르시니 암전키도 그지업니

업고라도 심건만은 놀기의 골물하여
못업분기 후회로다
병쾌갓튼 박실딕은 실낭이 편을드니
싸드릭기 혼졸느니 남편볼 낫치업니
훈짐존득 지고간니 그거시나 유세홀가
귀덕시런 용문딕은 권논징이 손여든가
기도훤석 너무커셔 뉘흔딕거 졸니루코
일월도 만져실듯
시딕죽체 모손딕은 우리압히 최졸드러
웃도올키 못노논듯
헌궁싱이 갈동딕은 놀기도 조컨만은
술임소리 다다걸고 첫머리에 쫓춧왓닉
황낙시런 왕능딕은 이길싱각 하엿지만
소원성치 못하엿닉
부지러는 영춘딕은 히마중 익기누아
더구나 고맙그러 우리편을 출싱힛닉
쌀이기 젓쥬노라 말석이 오섯든가
도리남죽 솔티딕은 드란지며 날남지니
귀코도 사랑하다
기도나죽 증율딕은 지광만 너르든가
터춧지도 만이하닉
낫치동실 솔골딕은 웃판인 힘안쓰고
입술덥기 힘을씨닉
왓픽시런 송기딕은 웃놀나고 왓건만은
갓조리 좃느라고 목느림이 펍도한다
알분단지 신평딕은 돈건기가 못이져와
익간중이 다녹으며 웃싱각은 아조업닉
동실동실 용포딕은 우숨월금 나왓든동
웃기만 힘을씨닉
설중적은 스창딕은 신중씨 의손연가
기도너무 나죽하다
싸무좁좁 광질이딕 조선알분 혼조로다
슴광질이 잇스오니 명다릭기 누길느고
절문중부 그안인가 가진풍물 야단일식
시딕니들 웃노논술 구경도 홀만하직
십연일득 모걸치면 좃쏘다와 우허노코
다섯모 혼걸치면 좃쏘의 녁돈쑤어
근근이 뒤지노코 말잘씨다 손벽치며

모기만치 소리하이 안질슈스 잇썬는야
싸님니들 윷철놀제 모야룻추 호기잇기
실니위위 소리쑏히 다섯모 걸이나면
넥동방혀 모로썩니 여흠부절 이안인가
윷줄놀고 말줄씨니 안이길슈 잇긴는야
넥살시런 소연드라 그씩씩흔 윷논다고
쥬적쥬적 싸라와셔 암달것히 장달갓치
알이 나온다시 활기춤은 무숨일고
저아무리 나딤키로 우리풍정 당흠손가
활기춤 추든것들 우리보기 염치업셔
실그럼이 드러썰씨 구경도 못흐엇니
안방쑤석 드러가셔 쏩이불 더퍼씨고
쑤줄나고 다갓든가
며늘니가 이기쓰면 눈골이 스무랍지
소연들 염치업셔 저의흠비 현중구를
먹기바디 돌너미고 춤추는 그구경을 엇지흐라
우리도 누덕인고 다각각 시딤의셔
축원흐신 덕턱인듯 얼스덜스 조흠시고
시딤니 염치업셔 남편니을 엇지불가
소연들 힘을밧고 이기양양 흐든모양
식춤기도 그지업고
싸님니 이긴일은 승쾌하기 총양업니
이러흔 성회중의 식물인들 부족흐라
미명의 돈일원식 출임흐야 소흔마리
기흔마리 쑤피노코 풍족하기 포식흐며
친부모님 슬전의셔 풍정조키 노든우리
엇지타가 여조로셔 숨척시편 첫딤문의
관관저구 ∞ ∞ ∞ ∞
∞ ∞ ∞ ∞ 조흔딤의 군조호귀 되얏시니
원부모 원형제는 고법의 송스이라
지조우귀 면흠손가 이러키 조흔명절
광음을 밀슈업셔 훌훌이 유슈되야
동원도리 편시춘도 춘몽중의 원송흐고
쥬릭을 지촉흐면 조연니 여조유흥
예필중부 미인몸이 각쳐로 훗치리라
어와우리 형제드라 조코조흔 구담강스
겨련이 이별흐고 부모동기 씨칠적의
섭섭기도 그지업셔 여조된흔 무궁흐다

춘풍의 낙화갓치 추풍의 낙엽갓치
각처로 훗터지면 명춘정월 송봉홀가
어이일정 기필허리
만닐기회 아득하면 그리워 엇지허라
네올적의 다투오고 다투적의 네뭇올듯
어와우리 봉우드라 풍정이스 조권만은
강산이별 원슈로다
남조들 우리보고 쫓조량이 여식로다
효부열여 다려다가 부모님께 효봉하고
류조류손 천세만세 전히가니 증홀시고
농조스업 중하도다
여보우리 여조들도 구고효봉 극진하고
성순군조 공경하여 부귀동낙 허울적의
영신 가절가절 허송말고 면면이 근친하여
계유연 정월갓치 일중화슈 모여놀시
계유 정월일 성중이라

[현대역]

척사 대회(擲會)1) 승부가(勝負歌)2)
낙동강 연안(洛東江沿岸)3) 우리 구담(九潭)4) 명승 기지(名勝基地),5)
좋은 곳에 번성하신 김씨 문호(金氏門戶)6) 가가 호호(家家戶戶)7)
자녀(子女)들도 장(壯)하도다.
송구영신(送舊迎新)8) 좋은 가절(佳節)9) 풍정(風情)10) 많은 따님네가
허송춘광(虛送春光)11) 하올 것인가.
이러한 장한 기회에 무슨 노름 하자는 말이고.
골래시래12) 그 노름은 건달(乾達)13) 난봉의14) 노름이요,
화토가로15) 그 노름은 화류 창기(花柳娼妓)16) 노름이라.
여러 가지 다 던지고 규중(閩中)의17) 여자님네.
윳 노름이 제일일세.
척사회(擲會)를18) 붙인다고 일시에 공론(公論)할19) 제,
장소는 누구 맥(宅)이고 광대(廣大)한 종택이라.20)
초육일(初六日) 성회(成會)라고21) 시비(侍婢) 불러 통문(通文)하니,22)
불상한 새댁네가 종종거름으로 바빠 재촉해
일제히 다 모였다.
동서(東西) 편으로 갈라 앉아 새댁네는 구경하니,
인물도 희한(稀罕)하다,23) 천하일색(天下一色)24) 다 모였네.
엷었거든 덜 껌거나 껌었으면 덜 엷거나,
엷고 껌은 갖가지 단장(丹粧)25) 녹의홍상(綠衣紅裳)으로26) 차려입고,
유두분면(油頭粉面)의27) 향내 속에 춘풍화기(春風和氣)28) 찬란하다.
거룩하신 남자들이 저 인물에 눈이 팔려,
사랑을 많이 주니 의기양양(意氣揚揚)29) 장관(壯觀)일세.30)
딸네 좌석(坐席) 살펴보니 여중호걸(女中豪傑)31) 다 모였네.
윳판을 부쳐놀을 제 아기딸네32) 처자들이
황소 같은 새댁네를33) 판판이34) 지게 할 적에
풍정(風情)35) 좋은 만운 송실(宋室)36) 엉덩이춤37) 추던 끝에
엷은 턱이 귀골(貴骨)38) 되어 옥관자(玉貫子)도39) 장하도다.
거리40) 좋은 소산 김실(金室)41) 유월 잉부(六月孕婦)로서42) 두중(頭重)하여43)
좌석에 앉은 모양은 광대(廣大)한 팔 칸 마루를
반(半)이나 차지하고 있네.
놀기를 즐긴 풍산 이실(李室) 백일(百日) 전의 어린애를
젓도 한 번을 주지 않고 종일종야(終日終夜)44) 윳판의 끝을 내네.
항렬(行列)이45) 높은 호기 홍실(洪室) 자정(子情)도46) 남다르다.
어린아이 핑계하고 윳놀기도 즐기지 아니하네.
얕전한 춘양 권실(權室) 일모 종야(日暮終夜)47) 호성(呼聲)으로48)

손뼉 치기가 일이로다.

화려한 동산 류실(柳室)은 은근(慇懃)한 풍정(風情)일세.49)

산드러진50) 개뿔 권실(權實) 모임이 서서 주장(主將)이로다.51)

아리다운 글촌 황실(黃室) 속으로는 좋아하나,

외면(外面)에는 천연(天然)하다.

영이(穎異)한52) 수동 권실(權室) 호기(浩氣)도53) 장하도다.

검제택(宅)54) 수동 권실(權室) 승부욕(勝負慾)도55) 대단하다.

앵도(櫻桃) 같은 그 입술이56) 남은 것이 다행이더라.

번거로운 초내 정실(鄭室? 丁室?) 윗도 제일 잘 놀건만,

매사(每事)가 조달(早達)하여57) 십육 세(十六歲)에 낳은 아들,

모자(母子)의 키가 똑같구나.

버들밖 강실(姜室)이는 우리 일가의 딸네로서

개명(開明)함이 제일이라 윗놀기는 뜻이 없고.

희사시(喜事時)58) 양머리에59) 삐죽 먹기60) 주장(主掌)일세.61)

어리무던한62) 봉화 정실(鄭室? 丁室?) 신정(新情)이 미흠(未洽)하여63)

신랑(新郎)을 작별하고 흥심(興心)이64) 없는 모양

외면(外面)에 나타나니 그도 또한 여사(餘事)로다.65)

매동택(宅) 처자(妻子)따님66) 척사대회(擲柳大會)67) 통문(通文)68) 들고,

놀고야 싶지만은 동생을 대행(代行)시키고,69)

혼인(婚姻) 날이 임박(臨迫)하니70) 동방 사창(洞房紗窓)에71) 비겨 앉아

손굽아 바라는 굴지 망부(屈指望夫)의72) 여세(餘勢)로다.73)

노퇴기 김서방(金書房)은 전처가(前妻家)의74) 오셨다가

딸네들 윗논단 말 풍편(風便)의75) 어찌해 듣고,

구경을 오셨다가 좌석(座席)을 살펴보니,

고인(故人)이76) 적막(寂寞)하여 헤픈 심사 측량(測量) 없네.77)

새댁네는 누구누구 모였단고.

유순(柔順)하신 종부(宗婦)님은78) 외면(外面)은 엄전하나79)

내용(內容)은 음흉(陰凶)스러워 따님네를 이기려고

온종일 헛애쓰80) 일 불쌍하기 그지없네.

두리 빵빵한81) 노동택(宅)은 그중에 나이 많다고,

편장 작체(偏長作體)82) 혼자서 하네.

웃말 도감(圖鑑)인83) 금당택(宅)은 웃말 씩을 품은 대단컨만,

웃놀이에 진 것은 공력(空力)인가.84)

아리잠직한85) 영천택은 윗이야 잘 놀아도

승공무덕(勝功無德)86) 되었구나.

허황(虛荒)스런87) 봉선택(宅)은 질 요량(料量)을88) 미리하고

신들매고89) 앞서 왔네.

어릿광대90) 태동택(宅)은 어르면서91) 눈을 빼나92)
남편이 일본 가서 편을 못 들어주니
남우경(男優景)을93) 부러워하네.
막다가 바스러진 남기택은 옷 젖다고 울고 갈걸 왜 왔던고.
흉물(凶物)스런94) 포내택은 며느리네가 민주스럽지만,95)
따님 중의 덕인(德人)이라, 금년 내로 생남(生男)하소.96)
악음97) 바른 두곡택(宅)은 윗말98) 도적(盜賊) 혼자로다.
짤막한 우동택(宅)은 산갯골에99) 생장(生長)하여
윗말을 모르시니 양전키도 그지없네.
업기라도 싶건만 놀기에 골물(汨沒)하여
못 업은 게 후회(後悔)로다.
번개같이 빠른 박실택(宅)은 신랑(新郎)이 편을 들어,
까드락거리기100) 혼자 하니 남편(男便) 볼 낮이 없네.
한짐 잔뜩 지고 가니 그것이나 유세(有勢)할까.101)
귀덕(貴德)스런 용문택(宅)은 권(權)난쟁이 손녀든가.
키도 훗씩 너무 커서 높은 데건 잘 누르고
일월(日月)도 만지실 듯
새택의 작은 체모 모산택(宅)은
우리 앞에 치졸(稚拙)102) 들어 윗도 옳게 못 노는 듯.
헌 궁생(窮生)이103) 갈동택(宅)은 놀기도 좋건만
살림살이 다 달아걸고104) 첫머리에 쫓아왔네.
황락(荒落)스런105) 왕능택(宅)은 이길 생각하였지만
소원 성취(所願成就)106) 못하였네.
부지런한 영춘택(宅)은 해마중에107) 애기 낳아
더구나 고맙구려, 우리 편을 출생(出生)했네.
딸아기 젓 주노라 말석(末席)에108) 오셨든가.
두리뻥직한109) 솔티택(宅)은 도란대며110) 날을 넘기니,
귀하고도 사랑스럽다.
키도 나직한 중울택(宅)은 지광(地廣)만111) 너르든가
터 차지도 많이 하네.
낮이 동실동실한112) 솔골택(宅)은 윗판엔 힘 안 쓰고,
입술 덮기 힘을 쓰네.
왈패스런113) 송기택(宅)은 윗놀려고 왔건만,
갓 자리 찾느라고 목 늘임을 펴도 한다.
알분단지 신평택(宅)은 돈견기(豚犬氣)가114) 못 잊어 나와,
애간장이 다 녹으며 윗 생각은 아주 없네.
동실동실 용포택(宅)은 웃음 월급(月給) 나왔는 듯,
웃기만 힘을 쓰네.

설장(丈)115) 작은 사창덕(宅)은 신장때의116) 외손녀인가
기도 너무 나직하다.
까무잡잡한 광질이덕(宅) 조선(祖先)을 알 뿐 혼자로다.
세 광질(狂疾)이117) 있사오니 명달(明達)한118) 아기는 누구이런고.
절문종부(節門宗婦)119) 그 아닌가, 가진 풍물(風物)이120) 야단일세.
새덕네들 율노는 꿀 구경도 할만하지.
십년일득(十年一得)으로121) 모와 걸을 하면 좃도다와 우혀놓고,
다섯 모 한 걸을 하면 좃도에 녁동을122) 꾸어
근근이 뒤집어 놓고 말을 잘 썼다고 손뼉 치면서
모기만큼 소리하니 안질 수야 있겠느냐.
따님네들 율을 놀 제 모야 율이야123) 호기(好機)124) 있어
실내 위위 소리 끝에 다섯 모와 걸이 나면
녁동의 방을 따서125) 모로 빠니 여합부절(如合符節)126) 이 아닌가.
율 잘 놓고 말을 잘 쓰니 아니 이길 수 있겠느냐
녁살스런127) 소년들아 그 씩씩한 율논다고
주적주적128) 따라와서 암탉 곁에 장닭(수탉) 같이
알이 나온 듯이 활개춤은129) 무슨 일인고.
제아무리 나대기로 우리 풍정(風情)130) 당할쏜가.
활개춤 추든 것들 우리 보기가 염치없어,
슬그머니 들어뻐 때 구경도 못하였네.
안방구석 들어가서 똥 이불 덮어쓰고
잠자려고 다 갔든가.
며느리네가 이겼더라면 눈꼴이 사납지.131)
소년들 염치없이 저의 할아버지 현 장구를
메기고 받으며 둘러매고 춤추는 그 구경을 어찌하라.
우리도 누구 덕인가 다 각각 시덕에서
축원하신 덕택인 듯 얼싸절싸132) 줄을시고.
새덕네 염치없어 남편네를 어찌 볼가.
소년들 힘을 믿고 의기 양양(意氣揚揚)하던133) 모양,
쉽게 참기도 그지없고,
따님네 이긴 일은 상쾌하기 측량(測量)없네.134)
이러한 성회(盛會)135) 중에 식물인들 부족하라
매명(每名)마다136) 돈 일원씩 출임(出賃)하여137) 소 한 마리,
개 한 마리 잡아놓고 풍족(豐足)하게 포식(飽食)하며,138)
친부모님 슬전(膝前)에서139) 풍정(風情)140) 좋게 노든 우리,
어찌다가 여자로서 삼백 시편(三百詩篇)141) 첫 대문에
관관저구(關關雎鳩)142) ∞ ∞ ∞ ∞
∞ ∞ ∞ ∞ 143) 좋은 데에 군자호구(君子好逑)144) 되었으니,

원부모 원형제(願父母 願兄弟)는 145) 고법(古法)의 146) 상사(常事)라. 147)
지자우귀(之子于歸) 148) 면할쓰는가, 이렇게 좋은 명절(名節)
광음(光陰)을 149) 매어놓을 수 없어 훌훌히 유수(流水)되어 150)
동원도리 편시춘(東園桃李片時春)도 151) 춘몽(春夢) 152) 중에 원송(遠送)하고,
추래(秋來)를 153) 재촉하면 자연히 여자유행(女子有行)하여 154)
예필종부(女必從夫) 155) 매인 몸이 각처로 흩어지리라.
어와 우리 형제들이 좋고도 좋은 구담 강산(九潭江山) 156)
결연(缺然)히 157) 이별(離別)하고 부모 동기(父母同氣) 158) 떨칠 적에
섭섭하기도 그지없어 여자가 된 한(恨) 무궁(無窮)하다.
춘풍(春風)에 낙화(落花) 같이 추풍(秋風)에 낙엽(落葉) 같이
각처(各處)로 흩어지면 명춘(明春) 정월(正月) 상봉(相逢)할까.
어이 일정(一定)하게 기필(期必)하리. 159)
만날 기회 아득하면 그리워서 어찌하라.
네 올 적에 내 못 오고 내 올 적에 네 못 올 듯,
어와 우리 붕우(朋友)들이 160) 풍정(風情)이야 좋건만,
강산(江山)의 이별이 원수로다.
남자들은 우리보고 아들 자랑이 여사(餘事)로다. 161)
효부 열녀(孝婦烈女) 162) 데려다가 부모님께 효봉(孝奉)하고, 163)
유자유손(有子有孫) 164) 천세만세(千歲萬歲) 165) 전해가니 장(壯)할시고,
남자 사업(男子事業) 장(壯)하도다.
여보 우리 여자들도 구고 효봉(舅姑孝奉) 166) 극진(極盡)하고,
성순 군자(誠純君子) 167) 공경하여 부귀 동락(富貴同樂)하올 168) 적에
영신 가절(迎新佳節) 169) 허송 말고 면면(面面)이 170) 근친(覲親)하여 171)
계유년(癸酉年) 정월(正月) 같이 일장 화수(一場和酬)로 172) 모여 놀세.
계유 정월 일 성장(成章)이라. 173)

[각주]

- 1) 척사 대회(擲柶大會) : 윷놀이 하는 대회.
- 2) 승부가(勝負歌) : 경기나 경쟁 등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두고 부른 노래.
- 3) 낙동강 연안(洛東江沿岸) : 낙동강의 강물이 흐르는 물가.낙동강(洛東江) : 우리나라의 남부를 흐르는 강. 강원도 함백산(咸白山)에서 발원하여 경상 남북 도를 거쳐 남해(南海)로 흘러 돛.
- 4) 구담((九潭) :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풍천면(豐川面) 구담리(九潭里)를 말함. 낙동강 가에 위치하여 그곳의 위아래에 9소(沼)가 있으므로 구담(九潭)이라 이르게 되었다. 이곳의 고적으로 “담암김선생유허비(潭庵金先生遺墟碑)”가 유명하다. 이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인 담암 김용석((潭庵金用石)이 무오사화(戊午士禍)를 겪은 후 이곳에 은거하여 후진교육을 하였는데 그 인물을 기린 비이다.
- 5) 명승 기지(名勝基地) : 명승지. 경치 좋기로 이름난 명승의 터전.
- 6) 김씨 문호(金氏門戶) : 김씨 집안. 김씨 문벌(門閥).문호(門戶) : 문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사회적 지체.
- 7) 가가호호(家家戶戶) : 집집마다. 모든 집마다 빠짐없이.
- 8) 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9) 가절(佳節) : 좋은 절, 또는 좋은 때.
- 10) 풍정(風情) : 풍회風懷. 풍치가 있는 정회.
- 11) 허송춘광(虛送春光) : 하는 일 없이 나이만 헛되이 보내는 것.춘광(春光) : 젊은 사람의 나이를 이르는 말.
- 12) 골래시래 : 민간에 전래해 오던 놀음의 하나. 본 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건달이나 난봉들이 즐기던 놀음의 한 가지.
- 13) 건달(乾達) :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일. 또는, 그러한 사람.
- 14) 난봉 : 허랑방탕한 짓. 또는, 그러한 사람.
- 15) 화토가로 : 민간에 전래해 오던 놀음의 하나. 본 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화류계에서 몸을 파는 천한 기생들이 즐기던 놀음의 한 가지.
- 16) 화류 창기(花柳娼妓) : 화류계에서 몸을 파는 천한 기생.화류계(花柳界) : 노는계집들의 사회.
- 17) 규중(閨中) : 규내(閨內).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18) 척사회(擲柶會) : 윷놀이의 모임.
- 19) 공론(公論) :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 또는, 그 의논.
- 20) 종택 : 종가(宗家)의 뜻으로 종택(宗宅)을 두고 표기인 것인 듯하다 ?종가(宗家) : 한 문중에서 말어로만 이어온 큰집.
- 21) 성회(成會) : 회의를 이루는 것.
- 22) 통문(通文) :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차례로 돌려 보는 통지문.
- 23) 희한(稀罕) : 좀처럼 대하기 어려울 만큼 특이하거나 기묘함.
- 24) 천하일색(天下一色) : 아주 뛰어난 미인을 강조하는 말.천하(天下) : 세상에서 드물거나 뛰어난 것임을 이르는 말.
- 25) 단장(丹粧) : 얼굴.머리.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미는 것.
- 26)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즉 젊은 여자의 고운 옷치장을 이르는 말.
- 27) 유두분면(油頭粉面) : 기름 바른 머리와 분 바른 얼굴이라는 뜻으로, 여자가 질게 화장을 하는 것.

또는, 그런 꾸밈새.

28) 춘풍화기(春風和氣) : 봄날의 화창한 기운.

29) 의기양양(意氣揚揚) : 득의하여 기세가 올라있는 것.

30) 장관(壯觀) : 훌륭한 광경. 또는, 훌륭하고 장대(壯大)한 경관.

31) 여중호걸(女中豪傑) : 호협한 기상이 있는 여자.

32) 아기딸 : 막내딸.

33) 새댁네 : 새색시의 높임말.

34) 판판이 : 판마다 번번이.

35) 풍정(風情) : 풍회風懷. 풍치가 있는 정회.

36) 만운 송실(宋室) : 만운 지역에 사는 송씨의 아네. 가사의 현대역 사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씨(姓氏) 바로 앞에 나오는 밑줄 친 곳의 표기는 대부분 그곳 성씨와 직접 관계된 지역의 표기로 판단된다. 때문에 한자 지명(漢字地名)인 경우 그 한자까지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원전의 표기를 밑줄 위에 그대로 옮겨 놓고, 이 방면의 전문적 식별에 의해 후일 이의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하 밑줄 친 곳의 표기는 모두 이와 같다.

37) 엉덩이춤 : 엉덩춤.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짓.

38) 귀골(貴骨) : 귀한 사람이 될 만한 인상이나 체격. 또는, 귀하게 자란 사람.

39) 옥관자(玉貫子) : 옥으로 만든 관자.관자(貫子) : 망건에 달아 망건당줄을 꿰는 작은 고리.

40) 거리 : 어떤 일의 대상이나 소재.

41) 김실(金室) : 김씨의 아내. 이하 이실(李室).홍실(洪室).권실(權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室”은 남편의 성씨 아래 붙여 그 성씨의 아내임을 표시한 말임. 이하 성씨와 “室”의 합성으로 이룬 표기는 모두 이와 같다.

42) 유월 잉부(六月孕婦) : 아이를 밴 지 6 개월이 되는 임신부.

43) 두중(頭重) : 두중각경(頭重脚輕)의 약어. 정신이 아찔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짐.

44) 종일 종야(終日終夜) :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해가 다하고, 하룻밤이 다하여 밤이 새도록.

45) 항렬(行列) :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대수(代數) 관계를 표시하는 말.

46) 자정(子情) : 자식을 사랑하는 정.

47) 일모 종야(日暮終夜) : 날이 저물고 하룻밤이 다하여 밤새도록.

48) 호성(呼聲) : 부르는 소리.

49) 풍정(風情) : 풍회風懷. 풍치가 있는 정회.

50) 산드러지다 : 맵시 있고 경쾌하다.

51) 주장(主將) :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52) 영이(穎異) : 영리하고 빼어남.

53) 호기(浩氣) : 호연지기浩然之氣. 호연한 기운.

54) 검제택(宅) : 검제에서 출가해온 여인의 호칭임. “검제”는 한자 지명(漢字地名)의 표기로 판단되지만, 앞에 든 주43)의 취지에 의해 가사의 원전을 밑줄 위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아울러 다음 가사에서 택호(宅號)의 표시로 나오는 매동택(宅).노동택(宅).금당택(宅)--- 등과 같이 지명의 표기는 모두 이에 준하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택(宅) : 친정 동네 이름 밑에 붙여, 거기서 출가해온 여자임을 나타내는 말.

- 55) 승부욕(勝負慾) : 상대와 경쟁을 하여 승부를 내려고 하는 욕심. 특히,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욕심.
- 56) 앵도(櫻桃) 같은 입술 : 작고 동글며 빨간 빛을 띠는 앵두와 같이 고운 입술.
- 57) 조달(早達)하다 : 나이에 비하여 올되다.
- 58) 희사시(喜事時) : 기쁜 일이 있을 때.
- 59) 양머리 : 서양식으로 단장한 여자의 머리.
- 60) 삐죽 먹기 : 삐죽대기. 삐죽거리기. 비죽거리기의 센말.비죽거리다 : 불평이 있거나 울려고 할 때에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 61) 주장(主掌) : 어떤 일을 오로지 맡아서 보는 것.
- 62) 어리무던하다 : 어린무던하다. 별로 흠이 없고 무던하다.
- 63) 신정 미흡(新情未洽) : 새로 사귄 정이 흡족하지 못함.
- 64) 흥심(興心) : 흥겨운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일.
- 65) 여사(餘事) : 그밖에 남은 일. 또는 그다지 요긴하지 않은 일. 가사의 원전에서 이르는 “여식으로 다”는 “여스이로다”의 줄인 표기임.
- 66) 처자(妻子) 따님 : 처녀 따님. 아직 시집가지 않은 성숙한 딸.
- 67) 척사 대회(擲辭大會) : 윗놀이 하는 대회.
- 68) 통문(通文) :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차례로 돌려 보는 통지문.
- 69) 대행(代行) : 어떤 일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
- 70) 임박(臨迫) : 가까이 닥쳐오는 것.
- 71) 동방 사창(洞房紗窓) : 신방(新房)에 꾸며놓은 김으로 바른 사창.신방(新房) : 동방(洞房). 신랑 신부가 거처하도록 새로 꾸민 방.사창(紗窓) : 김으로 바른 창.
- 72) 굴지(屈指) : 굴지계일(屈指計日)을 염두하고 이르는 말.굴지계일(屈指計日) :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헤아리며 기다림.망부(望夫) : 지아비 만나기를 바라며 기다림.
- 73) 여세(餘勢) : 어떤 일을 치른 다음의 나머지 세력이나 기세.
- 74) 전처가(前妻家) : 재혼하기 전의 아내의 집.
- 75) 풍편(風便) : 바람결. 어떤 말을 누구에게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
- 76) 고인(故人) : 죽은 사람.
- 77) 측량(測量) 없네. :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네.
- 78) 종부(宗婦) : 종가(宗家)의 맏며느리.
- 79) 엄전하다 : 하는 짓이 정숙하고 점잖다.
- 80) 헛애 : 아무 보람 없이 쓰는 애.애쓰다 :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해 힘쓰다.
- 81) 두리 : 생긴 모양이 동글고 큰 모양을 나타내는 말.뽕뽕하다 :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매우 부르다. 또는, 재산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이 부러움을 살만하다.
- 82) 편장 작체(偏長作體) : 편쪽의 우두머리처럼 몸자세를 취하는 것.편장(偏長) : 편쪽의 우두머리.편쪽 : 상대하는 한 편에서 어느 한 편을 가리키는 말.
- 83) 윗말 도감(圖鑑) : 윗말 쓰기의 가르침으로 만든 도감.윗말 : 윗판에 놓아 돌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나뭇조각이나 돌 따위의 물건.도감(圖鑑) : 동류(同類)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을 모아서 설명한 책.

- 84) 공력(空力) : 헛심. 헛되이 들인 힘.
- 85) 아리잠직하다 : 키가 작고 외양이 양전하며 어린 태도가 있다.
- 86) 승공무덕(勝功無德) : 경쟁에서 이긴 공이 덕망 없이 되는 것.
- 87) 허황(虛荒) : 헛되고 황당하여 미덥지 못함.
- 88) 요량(料量) : 앞일 따위를 잘 헤아려 생각하는 것. 또는, 그 생각.
- 89) 신들매고 : 들메끈으로 매고. 들메끈 : 신을 들메는 끈.
- 90) 어릿광대 : 우스운 짓이나 말로 남을 잘 웃기는 사람. 또는, 무슨 일에 앞잡이로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하기 좋게 하여주는 사람.
- 91) 어르다 : 사람이나 짐승을 놀리며 장난하다.
- 92) 눈을 빼나 : 눈짓을 일부러 지어보이지만.
- 93) 남우경(男優景) : 남자 배우의 형상.
- 94) 흉물(凶物)스럽다 : 성질이 음흉한 흉물에 가까운 데가 있다.
- 95) 민주스럽다 : 면괴스럽다. 남을 대하기에 부끄러운 데가 있다.
- 96) 생남(生男) : 득남(得男). 아들을 낳는 것.
- 97) 악음 : 아귀. 입심. 입.
- 98) 윗말 : 윗판에 놓아 돌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나뭇조각이나 돌 따위의 물건
- 99) 산갯골 : 산골과 갯골. 산골과 갯골 등 구렁텅이 골짜기. 갯골 : 갯고랑의 준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가의 고랑.
- 100) 까드락거리기 : 가드락거리기의 센말. 버릇없이 경망스럽게 잘난 채하기.
- 101) 유세(有勢) : 자랑 삼아 세도를 부리는 것.
- 102) 치졸(稚拙) : 유치하고 졸렬함.
- 103) 궁생(窮生) : 삼계(三界)로 유전(流轉)하며 궁하게 살아가는 중생.
- 104) 달아걸다 : 문이나 창 같은 것을 달고 잠그다.
- 105) 황락(荒落)하다. : 황폐하여 쓸쓸하다.
- 106) 소원 성취(所願成就) : 바라던 바를 이루는 것.
- 107) 해마중 : 해맞이.
- 108) 말석(末席) : 좌석의 차례에서 맨 끝 자리.
- 109) 두리넓적하다 : 모양이 둥그스름하고 넓적하다.
- 110) 도란대다 : 도란거리다.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다.
- 111) 지광(地廣) : 땅이 넓음.
- 112) 동실동실하다 : 동글고 토실토실하다.
- 113) 왈패 : 말과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수선스런 사람의 별명.
- 114) 둔견기(豚犬氣) : 개돼지의 기색. 개돼지 : 개나 돼지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사람을 욕하거나 알잡아 이르는 말.
- 115) 설장(丈) : 서있는 키.
- 116) 신장때 : 신장대(神將-). 무당이 신장을 내릴 때 쓰는 막대기나 나뭇가지.
- 117) 광질(狂疾) : 광증(狂症). 미친 증세.
- 118) 명달(明達) : 총명하고 사리에 밝음.

- 119) 절문 종부(節門宗婦) :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종가(宗家)의 말머느리.
- 120) 풍물(風物) : 농악에 쓰이는 악기의 총칭.
- 121) 십년일득(十年一得) : 큰물이나 가뭄의 피해를 많이 보는 논에 간혹 풍년이 듦.
- 122) 녁동 : 윷놀이에 쓰는 네 개의 말. 또는, 네 번째 나는 말.
- 123) 윷 : 여기서의 “윷”은 윷놀이에 사용하는 네 쪽으로 만든 윷과 또 달리, 그 윷을 놀 때에 윷짝네 개가 모두 잡혀진 경우를 두고 이름.
- 124) 호기(好機) : 호기회(好機會). 좋은 기회.
- 125) 방을 따다 : 윷놀이에서 말을 방에서 첫 발에 놓다.방 : 윷판의 한가운데 발.
- 126) 여합부절(如合符節) : 대나무나 옥으로 만든 부신(符信)을 맞추듯 사물이 꼭 들어맞음.
- 127) 녁살스럽다 : 부끄러움이 없이 비위 좋고 검질긴 데가 있다.
- 128) 주적주적 : 주적거리는 모양.주적거리다. : 어린아이가 걸음발타며 비틀거리며 귀엽게 걷다. 또는, 주책없이 잘난 채하며 자꾸떠들다.
- 129) 활개춤 : 두 날개를 펴서 짓는 듯 활개치며 추는 춤.
- 130) 풍정(風情) : 풍회風懷. 풍치가 있는 정회.
- 131) 눈꼴사납다 : 보기에 아니꼬워 비위에 거슬리게 밉다.
- 132) 얼싸절싸 : 흥겨워 뛰노는 모양.
- 133) 의기 양양(意氣揚揚)하다 : 득의하여 기세가 올라 있다.
- 134) 측량(測量)없다 : 헤아릴 수 없다.
- 135) 성회(盛會) : 성대한 모임.
- 136) 매명(每名) : 매인(每人). 한 사람마다.
- 137) 출임(出賃) : 대출(貸出). 빌려 주는 것.
- 138) 포식(飽食) : 배불리 먹는 것.
- 139) 슬전(膝前) : 무릎 앞이라는 뜻으로, 거느리는 곁이나 품안. 주로 부모의 보호 영역을 이룸. 슬하(膝下).
- 140) 풍정(風情) : 풍회風懷. 풍치가 있는 정회.
- 141) 삼백 시편(三百詩篇) : 중국 최고(最古)의 시집으로 전하는 『시경(詩經)』에는 시 305편이 전하는바 이를 가리켜 이르는 말임.시경(詩經) : 중국 서주(西周) 때부터 춘추시대에 이르는 가요 305편을 풍(風).아(雅).송(頌)의 세부 분으로 나누어 수록한 책. 공자가 편찬하였다고 전해오는 시집. 오경(五經)의 하나로 일컬 는중국 최고(最古)의 고전임.
- 142) 관관저구(關關雎鳩) : 부드러운 소리로 울며 화답하는 징경이.관관(關關) : 새가 화창하게 우는 소리의 형용.저구(雎鳩) : 물수리. 암수의 사이가 좋은 새로 일컬음.
- 143) ∞ ∞ ∞ ∞ ∞ ∞ ∞ ∞ : 이는 가사의 원전에서 판독 불가한 곳의 표시인바, 『시경(詩經)』의 출전을 좇아 이곳 본문의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在河之洲 窈窕淑女”
- 144) 군자호구(君子好逑) :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의 좋은 짝(배필配匹).
- 145) 원부모 원형제(願父母 願兄弟) : 본인을 낳아 길러주시고 형통을 같이하는 부모형제에게 원하고 바람.
- 146) 고법(古法) : 옛날부터 전해오는 법이나 법칙.

- 147) 상사(常事) : 예상사(例常事)의 준말. 보통 있는 일. 예삿일.
- 148) 지자우귀(之子于歸) : 결혼한 그 자식은 결국 시집으로 간다는 뜻으로 이른 말.우귀(于歸) : 신행(新行).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신방을 치른 뒤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가는 일.
- 149) 광음(光陰) :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 150) 훌훌히 유수(流水)되어 : 광음여류(光陰如流)를 두고 이룸.광음여류(光陰如流) :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음.
- 151) 동원도리(東園桃李) : 동쪽 정원에 핀 복숭아꽃이나 자두의 꽃.편시춘(片時春) : 잠시 지나가는 봄.
- 152) 춘몽(春夢) : 봄꿈.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
- 153) 추래(秋來) : 가을이 되는 것.
- 154) 여자유행(女子有行) : 여자로서 행실을 갖추는 것.
- 155) 예필종부(女必從夫) :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하여 좇아야 함.
- 156) 구담 강산(九潭江山) :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풍천면(豐川面) 구담리(九潭里)를 말함. 낙동강가에 위치하여 그곳의 위아래에 9소(沼)가 있으므로 구담(九潭)이라 이르게 되었다. 이곳의 고적으로 “담암김선생유허비(潭庵金先生遺墟碑)”가 유명하다. 이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인 담암 김용석((潭庵金用石)이 무오사화(戊午士禍)를 겪은 후 이곳에 은거하여 후진교육을 하였는데 그 인물을 기린 비이다.
- 157) 결연(缺然)하다. : 모자라 서운하다.
- 158) 부모 동기(父母同氣) : 아버지와 어머니 및 형제자매의 총칭.
- 159) 기필(期必) :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 160) 붕우(朋友) : 벗.
- 161) 여사(餘事) : 그밖에 남은 일. 또는 그다지 요긴하지 않은 일. 가사의 원전에서 이르는 “여식으로다”는 “여스이로다”의 줄인 표기임.
- 162) 효부(孝婦) :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열녀(烈女) : 절개가 굳은 여자.
- 163) 효봉(孝奉) : 효를 다하여 아버이를 모시는 일.
- 164) 유자유손(有子有孫) : 아들도 두고 손자도 두는 것. 유자 생녀(有子生女, 아들딸을 낳는 것.)와비슷한 말.
- 165) 천세만세(千歲萬歲) : 천만세(千萬歲)의 강조. 천만년(千萬年). 매우 멀고 오랜 세월.
- 166) 구고 효봉(舅姑孝奉) : 시부모(媿父母)께 효를 다하며 모시는 일.
- 167) 성순 군자(誠純君子) : 참되게 순수한 남편.군자(君子) : 예전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높여 일컫던 말.
- 168) 부귀 동락(富貴同樂) : 부귀를 누리며 같이 즐기는 것.
- 169) 영신 가절(迎新佳節) :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가절송구영신(送舊迎新)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가절(佳節) : 좋은 철, 또는 좋은 때..
- 170) 면면(面面) : 여러 사람. 여러 얼굴.
- 171)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아버이를 뵈.
- 172) 일장 화수(一場和酬) : 한바탕의 화수를 이루는 일화수(和酬) : 남이 보낸 시나 노래에 화답하여 갖는 일.

173) 성장(成章)이라 : 글을 이루노라. 본 가사의 제작을 두고 이르는 말임. 이 가사의 앞부분 단 락에 서는 “초육일(初六日) 성회(成會)”라 하여 가사 제작의 시기를 짐작케 한다.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